

지지부진한尹 체포... 국민들 '피로·불만' 고조

무기력한 공수처에 실망감 드러내
“국가 수장, 법치국가 근간 흔들어”
농민들 ‘즉각체포’ 트랙터 출정
국회 내 ‘백골단’ 등장 시민 경악

“이번에는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5일이 지났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용하기만 하다.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1차 집행 당시 무기력하게 물러난 터라 국민들의 피로감과 답답함은 더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법 집행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이렇다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지역민의 실망과 분노도 커지는 모양새다.

광주·전남 시민단체 및 정치권은 12일 일제히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체포’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고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광산갑) 의원은 “지난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진입 실패는 윤 대통령 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라며 “내란 수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과 시민, 학생들이 지난 11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제 10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서 은박 담요를 둘러쓰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외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괴는 구속수사가 원칙임에도 한 나라의 수장이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현재 불출석 등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은 피의자로서 영장 집행에 응하고 정당한 수사·재판을 받아야 한

다. 모든 상황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국민의힘 또한 여당이자 보수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정과 공동체 이익을 위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

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지난 10일 광주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는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비상행동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허용된 모든 가용수단을 동

원해 내란을 진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불법 쿠데타 수괴조차 체포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공권력을 다시 보게 된다면 국민의 분노는 공권력을 향하게 될 것”이라며 “체포를 방해한 자들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이른바 ‘남태령 대첩’을 이끌며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향했던 농민들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하며 출정하겠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강광석 강진군농민회 사무국장은 “2차 영장이 발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포가 안되면 저희는 다시 시동 걸어서 올라가겠다”면서 “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일권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의장 역시 “내란을 벌인 세력들을 옹호하는 국회의원까지 생기는 걸 보면서 나라가 진짜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모르겠다)”면서 “전농 중앙에서도 출정이야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명 ‘백골단’의 국회 등장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난 9일 김민준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였던 일명 ‘반공 청년단’에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2면에 계속 노병하·정성현 기자

강 시장 “오월 광주가 민주주의 위기 극복”

美 ‘드림워크’ 온라인 기조연설
계엄사태 이후 극복 과정 소개

강기정 광주시장이 자매도시인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드림워크 2025’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 시간 10일) 열린 ‘드림워크 2025’ 개막식에서 강 시장은 ‘민주도시 광주의 경험’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당초에는 직접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기로 했으나, 제주항공 참사로 미국 출장이 취소되면서 온라인으로 대신하게 됐다.

‘드림워크 2025’는 미국 시민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강조한 관용·평등·다양성 등 가치를 계승하고 정의·환경·교육·기술 등 전 세계 문제에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제주항공 참사에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보내준 론 니렌버그 샌안토니오시장에게 감사의 전하고, ‘12·3 계엄·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이 창의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소개했다.

강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이 선포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사회

관계망서비스(SNS)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계엄군보다 빠르게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장갑차와 계엄군을 막아섰다. 또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190명의 국회의원은 단 2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고 계엄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강 시장은 “1980년 광주는 대한민국에 ‘절대 공동체’라는 이데아를 보여줬고, ‘국가는 결코 국민을 향해 총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남겼다”며 “과거의 광주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도왔다. 실제로 광주의 햇볕은 응원봉으로, 주먹밥은 선결제와 난방차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

했다. 특히 “광주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이웃들 덕분”이라며 “대한민국이 창의적이고 평화로운 민주주의 혁명을 성공시켜 한국 민주주의의 해피엔딩을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론 니렌버그 샌안토니오시장은 “대한민국과 광주가 겪고 있는 계엄령 관련 최근 정치적 혼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부우이자 세계적으로 알려진 평화의 도시 광주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단결은 영감이 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김흥탁의 Branding Class 3기 모집

“마케팅의 모든 길은 브랜딩으로 통한다”

- [모집 인원]** 00명 내외
- [강의 장소]**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 [강의 기간]** 2025년 3월10일 개강-5월26일 종강 (10회+보너스 과정)
- [강의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30-8:30(2시간)
- [접수 기간]** 2025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 [수강료]** 220만원(부가세 포함)
- [문의]** 전남일보사업본부 (062-519-0730)

[모집 대상] 브랜딩에 관한 전반적 지식 습득과 브랜딩의 실천 경험 원하시는 분
나만의 브랜드 컨셉으로 시장에서 'Power Brand'가 되길 희망하시는 분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대중의 관점에서 브랜드를 개선하고 싶으신 분
기업/지방자치단체/의회/공공기관 등 홍보 부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

- [강사 이력]** Creative Solutionist 김흥탁
- Founder /2kg_Creative Solution Lab
- Chief Creative Officer / Paulus_Creative Agency
-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 뉴욕 One Club for Creativity
- Collective_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 Adfest
- 전 Chief Content Officer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
- 전 Visiting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전 제일기획 Creative Innovation Group 마스터
- 국가브랜드 프로젝트 총감독
-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자문 위원
- [빌게이츠재단+ Cannes Lions] 주관 세상을 돕는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멘토
- [UN+One Show New York] 주관 지속가능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심사위원장
- Cannes Lions, One Show New York, London International Awards, New York Festival 등 Global Creative Festival 수상, 심사위원 및 Speaker 초빙

